

인니 전자상거래 활발히 성장 ; 10년래 소매시장의 8%대로 증가 전망

-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 및 중산층의 증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최근 인니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 특히 2014년 모바일 사용자가 1억8000명으로 2017년에는 1억9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인니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 전자 상거래 비중을 현재 전체 소매시장의 1% 미만에서 10년내 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4년에 120억 달러에서 2016년에 2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향후 10년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물류서비스, 지불수단, 세금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될 로드맵을 오는 7월과 8월 사이에 발표할 계획임.

-현재 대통령령 No.39/2014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이며, 이는 국내기업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지분 100%를 내국인이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스타트업 업체들의 투자유치를 방해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함.

-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제도는 아직 논의 중임. 지난해 3월에는 무역장관이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및 소비의 증가로 인니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 등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경우, 외곽에는 쇼핑몰 수가 적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24시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음. 따라서 오프라인 판매 외에도 온라인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인니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함.

-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결제 및 배송시스템이 취약하여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출처: 데일리인도네시아, 글로벌윈도우, 한국 월스트리트저널 종합)